

#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

## Awareness and Needs of Original Inhabitants on Urban to Rural Migration

이준우, 홍유미  
강남대학교

Jun-Woo Lee(knudeaf@kangnam.ac.kr), Yoo-Mi Hong(kongymi@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주민의 입장이 고려된 귀농귀촌 정책 사업들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원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같이 총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함의는 첫째, 원주민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은 정부정책의 불만과 귀농귀촌인의 태도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 및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셋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과의 관계형성 및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인식으로는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귀농귀촌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의 활성화와 소통과 협업을 위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원주민과의 관계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의 멘토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귀농귀촌 | 원주민 | 사회적 통합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awareness and needs of original inhabitants on urban to rural migration and propose public projects with a consideration of their stance based on the results. To comprehend their awareness and needs on urban to rural migration through their experience related to it, focus group interview was done and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which are 'relative deprivation',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urban to rural migration', and 'plans for successful settlement'. First, the original inhabitants were discontent towards th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urban to rural migration and migrant's behaviors seemed to form negative perception on it. Second, financial difficulty and trouble in stable crop cultivation and acquirement of farming techniques were identified as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urban to rural migration. Third, the original inhabitants recognized the need of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original inhabitants and migrants and activation of meetings for exchange of information t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ups and migrants should have proper attitude and effort to learn the rural culture for interaction and cooperation. Fourth, there's in need for an institution, which serves as a focal point that provides information and support urban to rural migration. Fifth, successful plans for settlements of migrants thought by the original inhabitants were found. Sixth, there's a need for the original inhabitants to play the role of a mentor to the migrants for their settlement and to promot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 keyword : | Urban to Rural Migration | Original Inhabitant | Social Unification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귀농귀촌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문제해결로 부득이하게 실행[1]되었던 귀농귀촌이 1990년대에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정부의 귀농귀촌 추진기반 조성과 맞물려 중장년 및 노년층의 주도적 참여와 미래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젊은 세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귀농귀촌으로 이어지고 있다[2][3]. 1 정부 차원에서의 귀농귀촌 정책도 농촌지역을 지탱하는 전통산업이자 기반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그 규모와 수준이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차원과 연계됨으로써 귀농귀촌은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4].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핵심은 첫째,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 둘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정책, 셋째, 세제 지원 정책, 넷째, 현장 밀착형 귀농다터 정책 등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5].<sup>2</sup>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1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2017)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귀농인은 1만3019명으로 전년대비 7.5% 늘었고, 귀농가구도 1만2875가구로 7.7% 증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2018)한 행정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귀촌가구는 334,129가구로 전년 322,508가구보다 11,621가구(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49명으로 전년 1.47명 보다 0.02명 높게 나타났다. 귀촌인은 497,187명으로 전년 보다 21,698명(4.6%) 증가하였다. 평균 연령은 40.5세였으며 연령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6.6%, 30대 24.4%, 40대 16.9%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삶의 여유를 찾아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운영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다.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상담(방문상담/전화상담/온라인상담), 귀농희망자에 대한 귀농설계 컨설팅, 귀농다터를 통한 1:1 맞춤형 현장전문가 상담 연계 지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등 귀농귀촌지원 사업 홍보, 귀농귀촌희망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전문가(귀농선배 등)와의 소그룹강의를 통한 소통, 지자체별 귀농귀촌지원센터와의 귀농귀촌 지원업무 공조, 온라인을 통한 귀농귀촌 최신정보 제공 등이 있다[5].

정책과 사업은 도 단위와 시군 단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6]. 첫째, 도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사업은 크게 정착자금 지원, 교육·체험지원, 귀농귀촌 정보 제공,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둘째, 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서는 ‘정착자금 지원’이 대표적 사업이다.<sup>4</sup>

이렇게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정책은 주택구입, 창업지원, 세제지원, 정착자금 지원 등 귀농귀촌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귀농귀촌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귀농귀촌인이 도시지역과는 상반되는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과 원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형성<sup>6</sup>하는 일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실제로 귀농귀촌에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 괴리와 갈등은 귀농귀촌의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 도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는 ‘귀농귀촌인 사회적 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창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벌이며, 다른 도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다른 도에 비해 귀농인 유치에 대한 열의가 높고 시·군의 귀농인 유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조정·관리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농수산 분야 자체업무평가지표 중 ‘귀농’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귀농하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빈집, 농지 정보 등을 파악·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앙 단위에서 제시하는 창업자금이 용자인데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단위에서 중단한 ‘빈집 수리비 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지자체도 다수다.

5 통계청(2017)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귀농인’은 귀농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주소가 동 지역이고 현 주소가 읍, 면 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영역체 등록 명부의 경영주, 축산업등록 명부의 종축업자, 사육업자, 부화업자, 농지원부의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귀촌인’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자를 말하는데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이동을 의미하며, 귀촌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 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된다[4].

6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소통 부족, 상호 간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여, 이주민과 원주민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원주민들의 경우 도시의 생활습관을 농촌에서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귀농귀촌인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귀농귀촌인은 도시생활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는 성공적 귀농귀촌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00(60)씨는 1차 귀농시 귀농귀촌인은 지역에 무조건 속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배려 차원에서 지역 노인들에 봉사했지만 그러다보니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의 도움을 권리로 생각하고 부리기 시작했다. 농사를 도와달라며 꼭 비탈경사지의 힘든 부분의 농사만 부탁하고, 항상 오박이나 옥수수 등을 나눠드리다 물량이 달려 못 드리면 “왜 안 갖다 주냐”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00(57)씨는 지역주민이라서라기보다 노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사생활에 참견이 많은 것은 물론 서운한 일이 생기면 시비를 걸고, 서로 다 이야기하고 용보는 일이 허다했던 것이다. 특히 아내가 좀 더 힘들어했다. 도시라면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만 농촌마을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울리려고 했지만 어울리면 어울리는 대로 힘들고 지루했던 것이다. 안00(35)씨는 지역의 첫 블루베리농가로서 친환경재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받으면서 스스로 고립감도 많이 느껴왔다. 특히 친환경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어르신들의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더 오기가 생겨서 농사를 지었다. 작목에 대해 함께 논의할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기도 했다.<sup>7</sup>

또한 도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도시민이 농어촌에 이주하였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8]에 의하면, 농어촌 거주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이웃과 적응하는 문제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에 이주할 의향이 없거나 단순히 정주 의향만 지닌 집단의 경우, 생활상의 불편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지역사회 적응이나 원주민과의 갈등 극복 같은 일이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9]가 귀농귀촌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갈등이 있으며, 주요 갈등요인으로는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충돌’, ‘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집이나 토지문제’,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적용에 실패하여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역(逆) 귀농을 계획 중인 가구가 11.4%로 나타났으며, 이 중 16.9%가 이웃 갈등 및

고립감이라고 응답하여 귀농귀촌인과 원주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섭[10]은 귀농귀촌 정착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농촌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귀농 과정상의 어려움을 낳거나 강화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과 맞물려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11] 있으며,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12]. 하지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농촌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은 필요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Choi[13]는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이 많고 원주민들 간의 혈연, 지연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외부 인구의 유입 시, 배타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Choi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동 공간의 조성과 원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14].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귀농귀촌은 사회적 이민과 같은 성격을 담고 있다 [7][15][16]. 이는 문화와 소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원활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을 도모하여, 갈등의 소지와 정도를 줄이고, 온전한 하나의 지역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정책적인 접근을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귀농귀촌을 받아들여야 하는 원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지원 등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다. 즉,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비해 정착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원주민에 대한 접근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이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민의 입장에 맞춰져 있

7 장민기 외(2014)의 내용 중 일부(pp.55-56)를 요약 정리하였다[7].

다<sup>8</sup>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출발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으로 이어졌다.

“귀농귀촌이라는 중요한 ‘현실 사건’을 직면하는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과 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원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원주민의 귀농귀촌 인식과 욕구를 원주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주민의 입장이 고려된 귀농귀촌 정책 사업들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초점집단은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게 되는 특별한 집단으로 특히 집단에서 집단으로 어떤 질문들이 요구될지 상당한 개방성과 융통성이 주어지며, 미리 결정된 것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

원주민들에게 설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초점집단인터뷰를 선택한 이유는 원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여과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내부자적 관점에서 보다 진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초점집단인터뷰는 개별인터뷰에서 생각해내지 못하는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

황들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본 연구의 일환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심도 있게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 귀농귀촌을 활발하게 장려하는 지자체에 속한 원주민, 둘째, 30년 이상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주민, 셋째,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원주민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이상과 같은 연구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지자체 관련 부서에 요청한 결과, 본 연구 참여에 적극성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군 1곳이었다. ○○군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원주민 5명이 연구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ID	성별	연령대	정착기간	업종
참여자 1	남성	60대	원주민	고추
참여자 2	남성	50대	35년	콩, 깨, 고추
참여자 3	여성	50대	원주민	친환경 쌀
참여자 4	여성	50대	30년	울무, 콩, 고추
참여자 5	여성	50대	원주민	전기설비 사업

### 3.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노력

초점집단인터뷰 형식은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참여자들로부터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참여자들의 신원과 의견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인터뷰 실시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된 내

8 김정섭[10], 김기홍[17], 김한성[18], 박대식, 남송희[19], 김부성[20], 김철규 외[21], 유일 외[22]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들이 논의되고, 실제적인 정책과 사업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도시민의 입장에서 귀농귀촌을 다루고 있다.

용을 이메일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였으며, 인터뷰 당일,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확인서’를 제시하고 읽어보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연구내용에 대한 고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아가 보다 정확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양해를 얻은 후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녹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초점집단인터뷰는 2017년 9월 1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가량 경기도 ○○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 박사 2인이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보조자로 함께 하였다. 인터뷰 전체를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였고, 이후 수집된 녹음 파일을 녹취하였다. 우선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읽고 난 뒤 녹음파일을 확인하며 각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재독 시에는 한줄 씩 읽으며 떠오르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분류시켜 나갔다. 그런 다음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코드들 간에 연관성을 따라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중심 주제로 분석해 나갔다.

### III. 연구결과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한 결과, 원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같이 총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10개의 하위범주와 2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표 2. 분석 결과의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상대적 박탈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	- 차별적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있음 - 귀농귀촌인에 대해 적개심이 들기도 했음
	귀농귀촌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	- 귀농귀촌인에 대한 거리감이 있음 - 이질감을 느낌 - 인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됨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 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입이 없음 - 정부 지원만 바라고 귀농귀촌하는 것은 안 됨
	귀농귀촌 자체에 대한 어려움	-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의 어려움 -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귀농귀촌인과의 관계 향상이 필요	- 관계를 잘해야 함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함 - 친해져야 함 - 인사를 잘 해야 함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과 홍보가 필요	- 개방적인 기관이 필요함 -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귀농귀촌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일이 요구됨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원주민’ 이해 교육이 필요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농촌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 - 교육적 접근이 있어야 함
	원주민과 귀농귀촌이 협력할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	- 지역 축제를 활용해야 함 -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함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필요	-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원주민이 귀농귀촌인들의 멘토가 될 필요가 있음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원주민과의 협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빈집을 예비 귀농인들에게 일정기간 임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들을 원주민이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1. 상대적 박탈감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과 욕구로 상대적 박탈감이 도출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과 귀농귀촌인의 태도가 귀농귀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반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원주민들의 경우 도시에서 생활하던 귀농귀촌인의 옷차림이나 도시화된

태도 등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농사에 입하는 자세도 농사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고 태만해 보이는 인식을 조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1.1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어 있는 정부의 차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귀농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환영하고 박수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아니면 지원을 해주되 예를 들어서 대출을 무슨 0.5프로 해준다든지 영 점 몇 프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안내해 준대로 차츰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서 자기 소유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같이 농사짓는데 귀농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인간에게는 지자체에서 3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린 뭐냐? 우린 똑같이 농사짓는데?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참여자 1)

여기 이사 온 분들에게 솔직히 적개심까지도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귀농 했다고 하면, 어우 뭐 귀농한 사람들 다 퍼준다며 이런 얘기를 무지 들었어요, (참여자 2)

### 1.2 귀농귀촌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

귀농귀촌을 했음에도 여전히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듯한 삶의 모습에 대해 거부감이 표출되었다.

귀농귀촌을 하지만 귀농귀촌이 시골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게 처음에 거리감이 있더라구요, 시골사람은 어떤 때는 상 거지 마냥 일할 때는 옷차림이 더럽고 그래요, 여름에는 필리핀 사람이예요, 농사짓는 사람은, 근데 서울 사람은 보면 어우 그렇게 하고 왜 살아? 그래요 근데 사람은 행복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리감이 있는 게 용화가 잘 안돼요, (참여자 4)

다음에 귀농하는 사람이 복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 사람들은 몸빼바지에다가 농사하는 사람은 장화신고 아무렇게나 하는데 티셔츠라도 명품 티셔츠 입고 서울에서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면 동네 사람들 좋아하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 중략 ... 그러니까 귀농한 사람들은 대개 집도 있고 펜션식으로 이쁘게 짓고 하려는 꿈들이 있

는 사람들이예요, (참여자 1, 3)

인성도 문제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안하려고 그래요, 힘든 걸 안하려고 그래요, ... 중략 ...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자기는 직장생활 그만두고 농사지으려고 하는데 어우 이거 못하겠다고 접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내려오십시오, 소리가 나오겠냐구요, (참여자 3)

## 2.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

원주민들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이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염려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1 경제적인 어려움

귀농귀촌인의 경우 지속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원주민이 하고 있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 중략... 귀농하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이나 거기에 적응하셔서 힘들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건 나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여름에 농사지으면 가을 돼야 수입이 있잖아요, 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좀 염려가 되죠, 잘 살아야 할 텐데, 힘들거잖아요, 초반에는 도시 살면서 모아 둔 거 무지 까먹을 거예요, (참여자 3)

기존에 이제 많은 지원 혜택이 있다가 지금은 다 축소가 되었다고들 말해요, 원주민도 지원 못하면서 왜 외부인을 지원하느냐, 터부시 하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원만 보고 귀농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올려면 준비해 갖고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체력 비축해서 와야지, 순전히 꿈만 꾸고 와 갖고 여기서 돈 벌고 살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라고요, 심지어 기대만 잔뜩 하고 왔는데 실은 시골이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이 있어요, 돈 벌고 먹고 살기가 절대 어렵다는 거예요, (참여자 1)

### 2.2 귀농귀촌 자체에 대한 어려움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의 어려움과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귀농귀촌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농사를 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 ... 중략 ... 그래서 원주민도 그거를 저거 하는데 진짜 귀농이 와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죠, 쉽지 않죠, 사실 안타깝죠, (참여자 3)

우리가 35, 6년 됐는데 산전수전 다 겪듯이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겠냐구요? 텍도 없지, 여러 번 말아 먹어봐야 철이 들어요, 농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안타깝지, 도와는 주고 싶어, 그래도 도와줘도 안 되는 게 있지, 겪어야 하는 거지,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지, 내가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하늘과도 친해야 되지, 비도 적당하게 와줘야 하지, (참여자 4)

### 3.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

#### 3.1 귀농귀촌인과의 관계 향상이 필요

원주민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인과의 관계는 친밀감 형성이 되지 않아서 거리감과 이질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관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욕구들이 나타났다.

조금만 잘 해도 완전 막 감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 들어오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소식도 없이 이사 와 가지고 분동 만동 하면 되겠어요? (참여자 1)

어찌 되었건 이제 한 동네에 사는 거니까, 한 주민으로 사는 거니까, 어버이날이라든지, 또 뭐 복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노인정에도 귀농인들이 좀 찾아가서 뭐 소찬이라도 접대도 하고 소주도 한 잔 드리고 이렇게 좀 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 거지, (참여자 2)

창문 딱 열고 '뭐하세요?' 그럴 때도 있던 말이에요, 내려서 어르신 뭐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가 있던 말이에요, 시시콜콜한 것들 다 간섭 같은데, 실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관계죠, 그거 받아주고 그래야 되죠, ... 중략 ... 귀농해서 10년 넘게 해서 사는 가구가 몇 가구 있어요, 그래서 시간나면 노인분들이랑 가서 노세요! 하면 안가요, 통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저희하고는 잘 되는데 어르신들이랑은 대화가 잘 안 된대!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골 어르신들을 이해해야 하죠, 이해 안 되면 이해하게끔 도와주

는 교육이 있어야 하죠, 그거부터 공부하고 와야 되죠, 그게 기본이죠, (참여자 3)

땅 경계에서 꼭 싸움이 나오, 이웃하고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 당연히 오해가 생겨요, 친해질 수 있어야 해요, 친해지는 게 급선무예요, 친해지도록 뭐가 있어야 해요, (참여자 4)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누구네 집 자리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얼굴도 모르겠고 도대체 누구냐고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막 해주시던 분들이 이제 또 그 분은 아예 이제 뭐 인사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참여자 5)

#### 3.2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과 홍보가 필요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귀농귀촌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일과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욕구가 나타났다.

원주민의 관계에서 기관도 포함하는 거예요, 기관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에서 폐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자 1)

그런데 지금 어 대체로 운영,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하고 이렇게 밀착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기존 농업인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농업인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참여자 2)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길 밖에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너무 길이 한정되어 있고 물어봐도 그쪽 분야밖에 모르시죠,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도와주는 전문 기관과 전문가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게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죠, (참여자 3)

(귀농귀촌에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수익 같은 것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오히려 더 운영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귀농귀촌을 하는 어떠한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있어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귀농귀촌 계획서 같은 것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지도를 해준다던가, 해줘야지 그나마 적용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일대일 맞춤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

요, (참여자 4)

귀농귀촌하신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귀농귀촌이 진짜 힘든 게, 물어볼 데가 없다고요, 뭔가 하나 궁금해서 하나를, 잘 모르니까 ... 중략 ... 공무원 분한테, 아무나 가서 물어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5)

### 3.3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원주민 이해' 교육이 필요

본 연구에 참여한 원주민 대부분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예의범절과 문화, 원주민들과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는 옷차림과 태도, 지역적응을 위한 사전교육 등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모임 등을 계획하여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교류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데 여기 시골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말만 조금만 예의 바르게 하면은 금세 맘을 열거든요, 그러면 타지 사람이지만 봉사할 줄 알고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하는 분들도 그런 자기의 어떤 맞추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가르쳐줘야해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근데데 그냥 막 모아놓고 강사가 와서 그렇게 가르치질 말고 실제 사는 원주민들을 좀 모셔가지고 함께 앉아서 얘기도 하고 서로 힘든 것도 말해 주고 듣고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해요. (참여자 1)

그 분들이 와서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와서 잘난 척만 안하면 소통은 다 돼요, (참여자 2)

만일에 귀천 귀농을 할 사람이 대상 돼있으면 그런 인성들부터 시켜야 되죠 ... 중략 ... 저 인성교육을 시켜서 시골 사람들 맞게 해야 한다 복장도 비슷해야한다 언어도 해야 한다 ... 중략 ... 조금은 습득을 해서 이렇게 오면 그래도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3월 말에 개 심는데 "언제하세요? 그때 되면 같이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소통은 금방 되는 거죠, (참여자 3)

우리 동네에 이제 이장님 이런 분들을 먼저 찾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한 다음에, 집을 파는 분한테 저희 이장님이랑 이렇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집을 다니고 그래서 계약까지 하고 진짜 살게 되면 이장님 반장님 또 우리 옆 집, 앞 집 그렇게 인사도 하고, 저희 언제 이사 올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이사 오는 날은 떡을 따로 따로 챙겨서 드리고 그래야 서로 사는 정이 생기지요, 그게 사람 사는 정이고, 근데 도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잘 못해, 그거 알면서도 그냥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얼굴도 보고 말도 하고 정도 드는 거지, (참여자 4)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귀농귀촌 교육에서 이런 것을 조금만 좀 안내를 해주시면 굉장히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요, (참여자 5)

### 3.4 원주민과 귀농귀촌이 협력할 수 있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

지역 축제를 활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여기에 가을되면 지역 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할 때 농산물 판매가 되면, 귀농하신 분들 가운데 똑똑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동참해서 같이 판매하면 좋잖아요, 우리 토박이 농사꾼들하고 같이 ... 중략 ... 귀농귀촌인 분들께서 조금 더 마음을 써 주면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돈도 좀 생기고 농사 지은 거 소화도 좀 하구,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해주시고, 지역 축제가 이제 큰 축제인 거고, 또 농산물 큰 장터도 있거든요, (참여자 1)

일회성 같은 것을 조금 벗어나서 진짜 그 농사, 농사 작업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해요, 동네 주민 뭐 몇 집에 가서, 뭐 귀농인이 뭐 그 집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또는 동네에 귀농귀촌인들이 가진 역량을 동네 주민들과 같이 해서 귀농인들이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 뭐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참여자 2)

우리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것 없죠, 귀농귀촌해서 온 사람들이 서울이면 서울에서 살다 왔던가, 주변 사람들이 많죠, 그 농작물 필요하잖아요, 그걸 뭐 직거래 방식으로 연계시켜 준다면, 실제 그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가까워진다는 거죠, (참여자 3)

귀농하시는 분들 여기 오기 전에 책도 많이 보고 그냥 뭐 이래 저래 준비도 많이 하고 오는 걸아오, 근데 사실 농사지요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략 ... 발아가 거의 안됐대요, 올해 가물어서 그런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안 맞아서 그랬대요, 근데 실제 그게 그래요, 좋은 경험이 되었겠지만은 우리 토박이들은 그게 다 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부분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서 공통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귀농귀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한두 번 만나서 되게 아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함께 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해요, (참여자 4)

### 3.5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필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주 만나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줄 수 있는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죠, 와서 배우겠다면 기꺼이 얘기해주고 수용할 수가 있죠, (참여자 3)

그리고 처음부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땅부터 사놓잖아요, 그 마을의 정서를 모르잖아요, 그 정서에 맞춰야하는데 땅부터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먼저 세를 들더라도 그 마을에 가서 살아보고 내가 여기에서 살 수 있다 하면 그때서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참여자 4)

### 3.6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원주민과의 협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로 예산지원을 부담시키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방안도

도출되었다. 지역 내 비어 있는 집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함으로써 정착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과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때, 실제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빈 집이 많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나 지자체에서 그 집을 수리해서 귀농하는 사람을 거기 6개월이면 6개월 살면서 농사를 짓게 한다면지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 해주는 것도 아 내가 여기 못 있겠다 저 아줌마는 비기 싫은데도 그래도 저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여기 정착해야겠다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은 되지 않을까 보탬이 안될까 (참여자 2)

귀농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화를 해가지고 귀농귀촌을 연계가 돼서 너무 좋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원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땅을 사더라도 원주민들과 상담이나 얘기를 좀 물어보시고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참여자 3)

그 마을에 한 번 가서서 이장님이랑 그 다음이랑 그 마을 몇 분들 한 번 만나보고 그 마을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을에 홍보활동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데라는 게 되어야 하거든요, (참여자 5)

##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민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은 정부정책의 불만과 귀농귀촌인의 태도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원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귀농귀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도시화된 모습과 태도 등은 농촌문화에 익숙한 원주민들에게는 이질감과 반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주민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경우 소통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정부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나아가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 및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 자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실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재배업종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도 부족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농업 수행 역량을 키워줄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과의 관계형성 및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인식으로는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귀농귀촌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의 활성화와 소통과 협업을 위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예의범절과 문화, 원주민들과 이질감이 조성되지 않는 태도 등을 배우고, 지역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전교육과 더불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귀농귀촌 지원기관 및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는 것을 내포하며, 귀농귀촌과 관련된 지원 및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군청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농업인 실용교육 및 재배농법 정보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나 군청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농민의 경우 품종재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각 군청 산하의 농촌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 및 재배관련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 또는 플랫폼에 구축하여 귀농귀촌인 및 원주민들에게 교육 및 정보제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농작물 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멘토링 서비스체계의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서 사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피력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측면에서 귀농귀촌인과 원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문화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앞에서 제시된 귀농귀촌인에 대한 원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원주민과의 관계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의 멘토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사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중점적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귀촌인

과 원주민 간의 친밀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인들의 농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원주민 네트워크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의 농업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원주민 멘토링 지원체계를 농촌 사회에 구축해야 한다. 군청을 거점으로 하여 읍, 면에 이르는 지원연계조직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능한 원주민 리더 및 멘토들을 발굴하여 양성하는 일과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형태가 요구된다.

셋째, 기존의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중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의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센터의 독립 홈페이지는 각 지자체의 귀농귀촌 포털사이트(portal site)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정보, 농촌의 시설정보, 정책정보, 성공사례 전과, (예비)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귀농귀촌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귀농귀촌 정책의 성패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정확한 구축을 토대로 할 때 가능하다. 각 지자체의 특화된 상황을 정확하면서도 충실하게 반영하는 귀농귀촌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귀농귀촌 정책지원 현황, 교육실시 및 수료 현황, 귀농귀촌 정착 현황 등 실태가 세밀히 파악되고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전국적 차원의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귀농귀촌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2017년 수행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연구과제 중 질적 파트 일부를 재분석하였습니다.

### 참 고 문 헌

- [1] 김백수, 이정화,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분석,” 농촌사회, 제23집, 제2호, pp.7-48, 2013.
- [2] 통계청,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7.
- [3]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귀농·귀촌인 행정통계 자료, 2018.
- [4]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017년 경기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2018.
- [5]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 지원정책, 2017.
- [6] 최윤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토, pp.43-54, 2013.
- [7] 장민기, 허재욱, 김혜민, 채상헌, 김기현, 송기선,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실태와 관련 정책 발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14.
- [8] 성주인, 박시현, 윤병석, 이동필,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9]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6.
- [10] 김정섭,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11] 이민수, 이승형, 김명룡, 김정섭, 도시민의 귀촌 행태와 전라북도 대응 방안, 전북발전연구, 2010.
- [12] 정지민, 박경옥,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 주민의 공동체 특성: 충남 홍동지역 사례연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제26권, 제4호, pp.105-118, 2015.
- [13] S. S. Choi, *Cronyism on grass-roots democracy movements and how to solve it—a study on ‘Geochang Together’ case*,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2011.
- [14] Y. J. Jo and E. J. Jo, “An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the settlement and the community of people returning to rural areas - Focused in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19, No.4, pp.191-202, 2013.

- [15] 성지혜, “귀농지 적응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남편연고형’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0권, 제2호, pp.161-202, 2014.
- [16] 진명숙, 박성정,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인안지역 사례,” 여성연구, 제83권, 제2호, pp.275-297, 2012.
- [17] 김기홍,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방안*, 충남연구원, 2015.
- [18] 김한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활동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3-55, 2015.
- [19] 박대식, 남승희,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농촌사회, 제25권, 제1호, pp.41-87, 2015.
- [20] 김부성,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7-34, 2012.
- [21] 김철규, 이혜진, 김기홍, 박민수,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 [22] 유일, 최혁라, 김선명,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 전남 보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332-346, 2013.

저 자 소 개

이 준 우(Jun-Woo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총신대학교 종교교육과(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03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5월 :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목회학 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수어통역, 교회 사회복지실천

홍 유 미(Yoo-Mi Hong)

정회원



- 1990년 2월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2005년 8월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재활학 석사)
- 2012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수료)
- 2005년 9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외래교수
- 2006년 3월 ~ 현재 : 총신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농인복지, 수어 교육